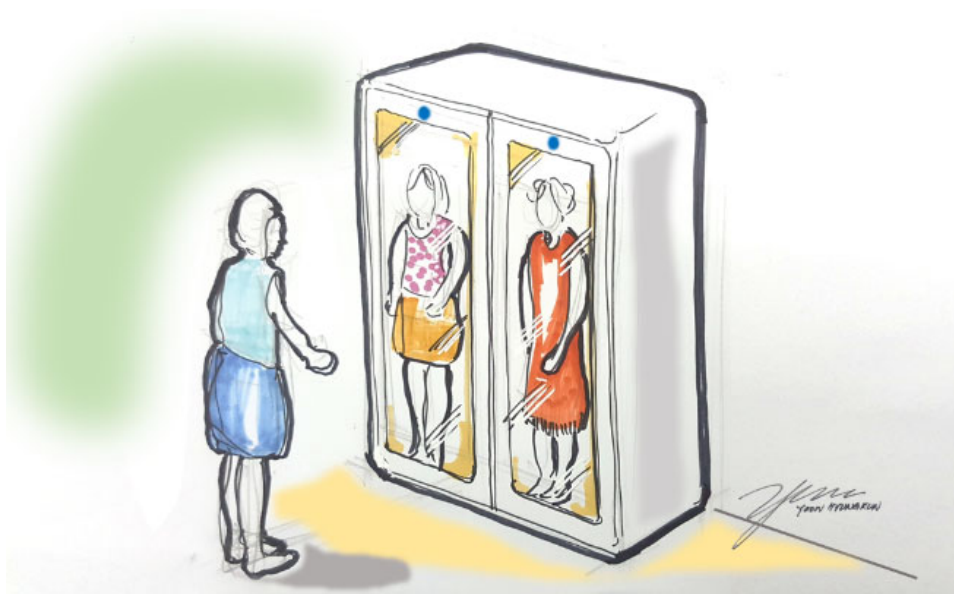


신상품을 잡지나 혹은 시장에서 직접 볼 때마다. 필자는 이 상품을 개발하는 동안의 사장님과 그 관련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만약 이 상품을 필자가 디자인하였다면 하고 생각하고, 이 상품 다음엔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이 상상은 끝이 없지만, 현재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많은 기술적 제약으로 쉽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기술적 제약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제품 개발은 더욱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에 만족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빅 데이터, IoT 등 핵심 기술로 우리 사회는 초연결 사회, 초지능 사회, 완전 개인화 맞춤시대로 될 것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못한 기술혁명이라고 하지만, 기술은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기술이 가치를 발휘하려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디자인과 접목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옷장은 사용자에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제안한다

사용자가 파티 장에 가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옷장 앞에서 서서 뭘 입을까 망설인다.

인공지능 옷장은 옷장 안에 있는 옷으로 멋지게 사용자를 위하여 코드를 하여준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새로운 옷들을 소개하며, 옷장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사용자 몸에 수많은 옷이 코딩된 상태를 보여 줄 것이다.

인공지능 옷장 센스가 사용자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스캔한 후, 상상을 초월한 디자인을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집까지 보내줄 것이다.



개인 성향을 맞춰 3디 프린터 출력한 신발 디자인



사용자가 자는 동안 무인자동차는 목적지까지 주행하고 있다

무인 자동차는 조속히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제까지 자동차는 이동용으로 제한된 용도에서 사무공간, 거주공간,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크게 변모할 것이다. 사용자가 한 잠자고 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다른 일과를 보낼 수 있어 시간 활용 개념도 바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행업종을 비롯하여 수많은 업종의 사업 모델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변화 속엔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비즈니스는 미래를 보는 눈에서 시작한다. 미래를 준비한 자는 미래 길목에 서서 기회를 노린다.

디자인은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로 만드는 행위이다. 디자인을 충분 활용하면, 미래의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로 될 수 있다.

대박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던가!